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 2005년도 제21차 회의

1. 일 자 2005년 10월 11일 (화)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박 승 의 장 (총 재)  
김 태 동 위 원  
이 성 태 위 원 (부총재)  
김 종 창 위 원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의장직무대행)  
이 성 남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이 상 용 감사 정 규 영 부총재보  
정 방 우 부총재보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이 영 균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김 수 호 금융시장국장  
이 광 주 국제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광 준 공보실장
6. 회의경과

#### <의안 제36호 — 통화정책방향>

(1)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115호 - 「국내외 경제 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116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117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2)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36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3)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활동이 활발해지고 항공기, 철도, 자동차 등의 교체주기가 도래하여 운수장비투자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관련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경공업은 물론 중공업의 경우에도 보다 유리한 투자조건을 찾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기업의 투자 패러다임이 종전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현저한 증가세를 나타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 설비투자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낮았고 정체를 보여 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증가율 수치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실제 설비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9월중 수출실적이 월간 및 일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8~9월중 높은 수출증가세는 선박과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고 석유제품 수출 증가는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 수출단가가 인상된 결과라고 본다면 사상 최고치라는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 아닌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경제성장 전망에 포함되는 상품수출은 금액기준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상승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물량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선박이나 석유류 등이 일시적으로 증가율 상승을 가져온 측면이 있으나 품목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점검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최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세계 천연가스 소비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정책당국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크게 걱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천연가스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르고 있고 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의 속성상 향후 소비가 계속 늘

어날 수밖에 없다고 볼 때 경제성장 및 물가에 대한 영향 분석시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분석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연체율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등 다른 실증적인 지표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그동안 신규차입을 억제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조정과정이 일단락되면서 부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판매신용도 그동안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때 부채조정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재정수요 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면 이를 가정하여 물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고유가, 수요압력 상승 등이 내년도 물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일각에서 미 달러화 약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세계경제가 불안해지고 국내외금리 격차가 벌어져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며 서비스업활동의 회복세가 확대되고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원가상승압력이 현재화되는 등 물가에 대한 상방위험이 극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물가목표의 대상지표를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로 바꾸더라도 체감물가와 괴리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미국과 같이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디플레이터를 쓴다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에 좀 더 근접해지는 것은 아닌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개인소비지출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에 비해 포괄범위가 넓으며 미국의 경우 매달 집계가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 디플레이터가 분기별로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최근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목표범위 아래로 하락한 데는 작년 동

기간 수치가 높았던 데 따른 반사효과 외에 환율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지난해 3/4분기까지 1,150원 가까이에서 유지되던 원/달러 환율이 4/4분기 들어 1,050원 이하로 급락하여 금년 3/4분기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4/4분기 이후 환율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경우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두 차례 남은 11월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회의에서도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현재 미국의 장기금리는 지난해 6월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미국의 재정적자와 아시아 국가들의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감안할 때 국채 발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여 결국 장기금리 상승, 장·단기 금리 격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미국 장기금리의 향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예단하기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미국의 수익률곡선 기울기가 보다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외금리차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으나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그렇더라도 우리 경제의 회복에 따라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면 내외금리차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9월중 금융거래에서 외은지점이 외화여신 등을 위해 상당 규모의 외화자금을 순유입하는 등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행과 외국환은행들간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은 시행 3개월째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통화스왑인 반면 외은지점의 해외차입과 같은 금융거래는 단기거래에 해당하여 외국환은행에 단기 외화스왑을 허용할 경우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의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 제도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모니터 해본 결과, 일반기업은 물론

은행들도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을 과거의 외화예탁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  
내외금리 격차가 좁아짐에 따라 은행들의 동 거래 유인이 예전보다 줄어든 데다,  
수요면에서는 시설재 수입자금이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동 제도의 본래 목  
적과 달리 원화나 외화 어느 쪽에서도 시설재 투자자금 수요가 많지 않은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만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는 항공기, 선박 등과 관련하여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8월말 이후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 외에 8·31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의 단기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데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8~9월중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립식펀드 등 주식형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에 힘입어 기관이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간접투자  
가 활성화되는 바람직한 양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이 다소 과열되고  
있다는 징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는 주가상승으로 우리나라  
주식의 보유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단기급등에 따른 부정적인 현상만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그동안 외국인에 의한 국내주식 소유비율이 과도하게  
높았던 측면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현 증시가 유동성장세의 성격이 우세하나 증시의 인프라  
나 투자형태 등이 바뀐 가운데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이 장세를 지지해 주는  
부분이 있고 시스템이 바뀌면서 상승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9월 들어 MMF가 감소하면서 자금이 자산운용사에서  
은행권으로 대폭 이동하게 된 것이 10월중 법인기업에 대한 익일 환매제 시행에  
일부 기인한다고 본다면 이러한 현상이 9월로서 마무리된 것인지 아니면 10월에  
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9월에는 제도변경  
예고 외에 고금리 정기예금 특판, 8·31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이 있었으며 실제  
시장에서는 MMF 제도변경에 따른 인출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10월에는 9월과 같은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3/4분기 은행 시설자금대출 실적의 큰 폭 확대가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개선한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총액한도대출과 연관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아직 확인된 바는 없으며 중소기업 시설자금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지원이 8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한 분기 정도 지난 후에 효과를 점검해 볼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최근 MMF가 줄어들고 은행의 장기수신이 늘어난 것은 MMF 관련 제도변경, 고금리 특판예금 등 특수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하며 정책금리가 아직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자금의 단기부동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시중자금 단기화 현상의 완화는 시장금리 상승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9월중 단기수신비중 하락은 특수요인에 기인한 바 큰 것이 사실이나 금리상승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일반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 구성시 주식형 금융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면 시중자금 단기화 현상이 더 이상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시장금리 상승은 향후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MMF 자금이 특판예금으로 이동한 데에는 금리상승 기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정책금리 변경시 근원인플레이션율, GDP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6개월, 1년, 2년 후 궤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하여 정책판단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5년간 고소득층의 순자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의 금융부채 증가는 금융의 중개기능이 개선되어 종전보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저소득층의 금융부채 증가는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데다 카드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고 설명하였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콜금리 목표 조정여부 및 조정폭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콜금리 목표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최근 부동산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내림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부동산관련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가져옴은 물론 궁극적으로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둘째, 3/4분기 실질GDP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GDP갭이 축소되고 있어 그동안 정책금리가 수행해 왔던 경기부양적 역할을 다소 줄여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판단됨. 다만 경제구조의 양극화로 인해 3/4분기의 강한 회복세가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유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정책 이외의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셋째, 물가면에서는 석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내년 하반기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목표범위 중심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넷째, 최근 장·단기 시장금리가 오르는 것은 금융시장이 이미 정책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음. 9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를 비롯하여 지난 2~3개월간 한국은행이 나타낸 시그널에 대해 시장이 시장금리를 통해 반응을 보이고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의 시그널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다섯째, 시그널링을 통해 시장의 자금흐름 정상화에 이미 기여하였다고 보나 추가적으로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다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여섯째, 최근 경상수지 흑자를 초과

하는 규모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내외금리차가 더 확대되어 경상수지 흑자 규모 이상으로 해외증권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축소하고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일곱째,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다소 미흡하지만 국회의 입법과정, 정부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동 대책의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정책금리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더라도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콜금리 목표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미약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건설투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나 수출이 예상외의 호조를 보이고 있어 3/4분기에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이는 여러 가지 비관에도 불구하고 지난 11개월간 유지해 온 저금리기조를 통한 금융완화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됨; 둘째, 금융시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은행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난 시그널로 인해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며,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주가와 장·단기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완화 기조에 힘입어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셋째, 3/4분기 예상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세의 이면에는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음. GDP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GDI는 정체되어 있고 정부의 세수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조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일부 하락하고 내년에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는 역(逆)의 부(富)의 효과를 통해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고 건설투자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또한 향후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의 향방 및 수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 넷째,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물가의 경우, 금년 1~9월중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5%,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8%에 그쳤으나, 고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용상승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중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수요압력이 커짐으로써 이제까지 잠재되어 있던 물가상승압력이 현재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콜금리 목



표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물가는 금년중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용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위축으로 안정세를 지속하여 목표범위 중심선 이하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둘째, 중앙은행이 내수 진작에 나서는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주 목적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경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되면서 대응에 나선 결과, 현재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여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내년에는 국제유가 등 해외물가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경기회복과 맞물려 물가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경기회복을 기대하면서 공급된 과잉유동성의 일부가 투기자금화되어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어, 이제 물가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의 왜곡현상을 시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됨; 셋째, 미국이 경기호황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정책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진 상황이며 이는 해외자본유출, 환율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급격한 자본이동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통화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완화에서 중립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다만, 경기가 회복 초기에 있고 고유가 및 세계 거시경제의 불균형,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등 불안요인들이 잠재해 있는 데다 금융부채의 상당부분이 수용능력이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에 지워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콜금리 목표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실물면에서는 수출이 예상외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소비도 2/4분기 이후 분명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연초에 연율 2~3%에 머물던 경제성장률이 최근에는 4~5%로 높아진 것으로 생각됨; 둘째, 물가가 금년 하반기 상당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수요압력이 미약한 데다 전년말과 금년초 환율하락에 기인한바 큼. 다만 그동안 유가 상승분중 실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향후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셋째,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정책금리 인상을 예상하여 콜금리 목표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간 격차가 상당폭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에 정책당국이 부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그동안 내수부진 때문에 저금

리를 유지해 왔으나 현재 물가상승률이 2~3%이고 경제성장률이 4~5%임을 감안할 때 콜금리 목표 3.25%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수준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 시장이 교란될 수 있어 그동안 유지해왔던 금융완화의 정도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금 그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됨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콜금리 목표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그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경기가, 가계부채 및 기업생산능력 조정이 상당한 정도 마무리되면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소비재 판매액지수나 서비스업 동향으로 비추어 볼 때 민간소비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고 수출도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2개월 단위로 묶어서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임.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으로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증가세나 공기업의 투자확대계획 등을 감안할 때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임; 둘째,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인 물가안정 측면을 보면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지난 6월부터 목표범위를 하회하는 등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시중 유동성이 다소 과다하게 풀려있다는 점과 인플레이션이 화폐적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물가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보임. 그동안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저가품 공급에 힘입어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고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내년초부터 상당한 물가오름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셋째,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현재 시행초기단계에 있어 대책발표 이후 서울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5% 정도 하락하였을 뿐 강남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제외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된 정도에 불과하며 일각에서는 아파트 전세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매매관망세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비록 부동산 등 자산가격 자체가 중앙은행의 물가목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자산가격 양등은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를 유발하여 경제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콜금리 목표 인상을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통화신용정책이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한국은행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임; 넷째, 미국의 부동산버블 우려와 고유가에 따른 물가불안, 일본의 경기회복 움직임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금리인상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정책금리에 이어 장기금리도 역전된다면 산업자본에 더해 금융자본마저도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하여 세계금리 수준과 자연스럽게 보폭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다섯째,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경기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기순환상 호경기는 반드시 불경기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경제의 침체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입을 수 있는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여섯째,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의 혜택을 누려왔던 기업이나 개인, 정부는 스스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제행위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하며 이는 경제상황에 맞게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여짐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콜금리 목표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경기면에서는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고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는 다소 부진한 양상이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지 감소한 것은 아니며 제조업이나 서비스 생산 측면에서도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둘째, 물가는 현재 수요측면의 압력이 미약하여 매우 안정되어 있으나 비용측면에서 고유가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서 물가에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수요압력도 다소 높아질 수 있음; 셋째, 8·31 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가격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고 단기간 동안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등 변동성이 증대되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됨; 넷째, 한·미간 정책금리 격차가 0.5% 포인트로 확대되었고 연말까지 남은 두 차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도 미국의 정책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가 정책금리를 그대로 둘 경우 1% 포인트로 격차가 확대될 수 있고 장기시장금리의 경우 우리나라가 여전히 상당폭 높은 수준에 있으나 미국의 장단기금리 격차는 언젠가 분명히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단기정책금리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지난달 내보낸 시그널의 효과로 시장에서는 대다수가 콜금리 목표 인상을 예상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중앙은행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시장의 기대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여섯째, 중립적 금리, 장기 균형금리에 비해 현재 금리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이 격차를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점진

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이미 시장금리에는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막상 콜금리 목표를 조정하더라도 시장금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어떻게 시장에 비춰지느냐, 시그널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위원들의 견해 표명에 따라 위원들은 콜금리 목표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였음

#### (4)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실물경제는 설비투자과 건설투자의 개선이 미흡하나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건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수입수요 증가로 흑자폭은 축소되고 있음

- ☐ 물가는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 모두 안정세를 나타내고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도 둔화되고 있으나 고유가 지속으로 비용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잠재되어 있음

- ☐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사정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고 금융기관의 여신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금리는 경기회복 기대 등을 반영하여 상승세를 나타내었음

-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재의 3.25%에서 3.5%로 상향조정하여 운용함

〈의안 제39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개정〉

(1) 담당 부총재보가 콜금리 목표 상향조정과 병행하여 유동성조절대출금리를 인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개정내용 (생략)

(별 첨)

##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 I. 국내외 경제동향

#### 1. 해외경제동향

##### 가. 주요국경제

미국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둔화 가능성도 대두되었음. 8월중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자동차 제외)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자본재수주(비국방부문)도 큰 폭의 증가로 반전하였으나 허리케인 피해와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9월중 소비자 신뢰지수가 큰 폭 하락하는 등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을 나타내었음

중국경제는 8월중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위안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 신장세가 확대되는 등 고성장을 지속하였음

일본경제는 8월중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가 증가로 돌아서고 수출증가세도 확대되는 등 회복세를 지속하였음. 일본은행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경기판단을 상향조정하였음

유로지역 경제는 7월중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수출 및 산업생산 증가세도 소폭 둔화되는 등 회복이 지연되었음

##### 나. 국제금융시장

9월중 미국 주가는 횡보하였으며 유로지역 및 일본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음. 미국 주가는 9월초 허리케인 피해복구 특수 기대로 일시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유가급등에 따른 소비둔화 우려 및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중순 이후 10,500 수준에서 횡보하였음. 유로지역 주가는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개선 기대 등으로 전월의 약세에서 상승 반전하였으며 일본 주가는 경기회복 기대, 총선 이후 개혁 가속 전망 등으로 4년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미 국채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9월초 성장둔화 우려 등으로 4% 부근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및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예상 등으로 상승하였음

미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로지역의 성장격차 확대, 독일 총선 이후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엔화에 대해서는 대미 자본유입 증대, 미·일 금리격차 확대 예상 등으로 강세를 나타내었음

#### 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국제유가는 9월 들어 IEA 회원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OPEC의 증산 합의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중순 이후 소폭 상승하였음. 하순경에는 허리케인 Rita에 따른 석유시설 피해, 미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Brent유가 배럴당 62달러(Dubai유는 57달러) 내외에서 등락하였음

9월중 기타원자재가격은 곡물가격의 오름세로 상승 전환하였음. 소맥 및 원면가격은 수요증가 및 수확차질 예상 등으로 비교적 큰 폭 반등하였으며 동 가격은 일부광산 파업소식 등으로 월말경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니켈(-10.0%), 주석(-6.9%) 등은 큰 폭 하락하였음

### 2. 국내경제동향

#### 가. 국내수요, 산업활동, 고용

소비는 8월중 소비재 판매가 큰 폭 증가(전년동월대비)하고 9월중 백화점·할인점 매출 및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회복세가 소폭 확대되었음. 다만 승용차 내수판매는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 9월중 감소로 전환하였음

8월중 설비투자추계지수는 운수장비투자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반도체제조장비가 큰 폭 감소하면서 소폭 감소(전년동월대비)하였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2개월 연속 증가하였음

건설투자는 8월중 건설기성액(명목금액)이 전월에 이어 낮은 증가를 나타내는 등 회복세가 약화되었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학교·병원 등을 중심으로 건축수주가 늘어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건축허가면적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음

8월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업체의 파업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세(전년동월대비)가 둔화되었음. 그러나 자동차 생산을 제외하고 보면 8월중 제조업 생산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8월중 서비스업활동은 서비스업 활동지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회복세가 확대되었음.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부진을 지속하던 숙박·음식점업도 감소세가 축소되었음

고용사정은 8월중 취업자수가 서비스업 회복, 전년동월 부진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완만한 개선추세를 나타내었음. 실업률도 계절조정전, 계절조정후 모두 소폭 하락하였음

7월중 전산업 임금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특별급여의 감소 등으로 전월보다 둔화되었음

####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9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 오름세가 확대(전월대비 : 8월 0.3% → 9월 0.7%)되었음. 이는 추석수요와 태풍 등 기상악화로 농축수산물가격이 크게 오르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하였음. 전년동월대비 상승률도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9월중 근원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오름세가 소폭 확대(8월 0.1% → 9월 0.2%)되었음.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1.9%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음

아파트 매매가격은 8·31 대책 영향으로 서울 강남지역이 보합세를 나타내고 분당이 하락하고 강북지역 및 광역시 등은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9월중 오름세가 둔화되었음. 아파트 전세가격은 계절적인 이사수요와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한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으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음. 8월중 아파트 거래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로는 30.8% 증가하였으며 9월중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다. 대외거래

수출은 9월중 247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7% 증가하여 월중, 일평균(11.0억달러) 수출액 모두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나타내었음. 품목별로는 선박, 기계류,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이 호조를 나타내었음

9월중 수입은 원자재가 유가 상승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자본재와 소비재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세(전년동월대비 24.5%)를 나타내었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전월보다 축소되고 서비스수지가 계절적 요인으로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8월중 일시 적자로 전환하였음(7월 +14억달러 → 8월 -4억달러). 그러나 9월에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 및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로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었음

## II. 외환 · 국제금융 동향

### 1. 환율

9월말 원/달러 환율은 1,041.1원으로 전월말대비 2.6원 상승(0.2% 절하)하였으며, 월평균 환율은 1,029.5원으로 전월대비 8.0원 상승(0.8% 절하)하였음. 원/달러 환율은 월초순 엔/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1,022.6원(9.5일)까지 하락한 후 1,025원을 중심으로 소폭 등락하다가, 월하순 들어 수출기업의 외환선매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의 상승 전환,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순유출, 비거주자의 역외선물환(NDF) 매입 증가 등으로 상승하여 1,041.1원으로 마감하였음

9월중 원/엔 환율(100엔당)은 917.2원(9.27일)까지 하락한 후 소폭 반등하여 월말에는 전월말대비 11.6원 하락한 921.1원을 기록(1.3% 절상)하였음

한편 주요 10개 교역상대국의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산출한 9월중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월평균 기준)은 전월대비 0.5% 절하되었음

### 2. 외환수급

9월중 경상거래는 전월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20억달러)를 유지하였음. 무역거래는 수출이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수입이 증가하여 흑자규모(30억달러)가 전월(38억달러)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무역외거래는 여행 등 서비스거래 적자 축소 및 소득거래 흑자 전환으로 적자규모(-10억달러)가 전월(-18억달러)보다 감소하였음

9월중 자본거래는 35억달러 순유출되어 전월(-20억달러)보다 그 규모가 확대되었음. 장기자본거래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순유출 지속 및 거주자의 해외발행증권 상환 등으로 전월(-20억달러)보다 순유출 규모(-35억달러)가 확대되었으며 단기자본거래는 유출입이 균형을 이루었음

9월중 금융거래는 28억달러 순유입되어 전월(14억달러)보다 그 규모가 확대되었음. 국내은행은 해외증권 발행 및 콜론 등 해외운용자금 회수로 큰 폭(16억달러) 순유입 되었으며 외은지점도 외화여신 및 콜머니 상환 등을 위해 본지점차입을 늘림에 따라 순유입되었음

### 3. 외환보유액 및 외채

9월말 외환보유액은 2,067억달러로 전월말 수준을 유지하였음.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유로화 등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용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9월말 총외채(추정치)는 1,937억달러로 전월의 감소(-13억달러)에서 큰 폭 증가(38억달러)로 전환되었음. 장기외채는 국내은행의 해외증권 발행 등으로 소폭(5억달러) 증가하였고, 단기외채는 외은지점의 본지점차입을 중심으로 큰 폭(33억달러) 증가하였음

한편 9월말 순대외채권은 총외채 증가(38억달러)가 총대외채권 증가(28억달러)를 상회함에 따라 전월말보다 10억달러 감소한 1,102억달러로 추정됨

### 4.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9월중 국내은행의 해외차입여건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자산 기피성향 완화,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발표(9.19일) 등으로 호조를 보였음. 이에 따라 외평채(2013년 만기) 가산금리(60bp)는 월중 소폭(5bp) 하락하였음. 국내은행의 단기차입 가산금리(9bp)는 전월에 이어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장기차입 가산금리(32bp)는 차입기간 장기화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9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자금사정은 원활하였음. 국내은행은 장기차입금을 중심으로 만기도래액보다 많은 규모를 차입하였음. 거주자외화예금은 기업의 수출대금 예치 등으로 4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외화대출은 3억달러 증가하였음

### 5. 국제금융시장

9월중 미국 주가는 강보합을 보였음. Dow Jones 및 Nasdaq 지수는 허리케인의 영향에 따른 경제성장세 둔화 우려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국제유가 하락

및 일부 경제지표 호조 발표에 힘입어 강보합으로 마감하였음

9월중 유럽과 일본 주가는 상승하였음. 독일 및 프랑스 주가는 국제유가 하락, 기업실적 호조 전망 등으로 상당폭 상승(독일 +4.4%, 프랑스 +4.6%)하였으며 일본 주가도 경기회복 가시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에 따른 경제개혁 추진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9.4%)하였음

9월중 미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음. 유로화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및 추가인상 전망, 총선(9.18일)이후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 부각 등으로 약세(2.6% 절하)를 보였으며 일본 엔화도 경기회복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 전망으로 약세(1.5% 절하)를 보였음

9월중 미국의 단기금리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유로지역과 일본의 단기금리도 Axel Weber ECB 통화정책위원의 금리인상 필요성 제기(9.27일) 및 Fukui 일본은행총재의 양적완화정책 변경 시사(9.30일) 등으로 상승하였음

미국의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 연준이 지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독일과 일본의 장기금리도 각각 인플레이션 우려 및 경제지표 호조 발표로 상승하였음

9월중 미국 및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상한 반면 브라질 및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음

### III. 금융시장 동향

#### 1. 금리 및 주가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정책금리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등(9.8일)한 후 경기회복 기대, 주가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하였음

CD(3개월) 유통수익률도 장기시장금리 상승, MMF의 대폭 감소에 따른 매입수요 둔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음

은행 수신금리는 고금리 정기예금 특판, CD 발행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여신금리는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기업들의 추석 자금수

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인상 조정되면서 상승하였음

9월 중 종합주가지수는 경기회복 기대, 시중자금의 증시유입 지속 등으로 사상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면서 빠르게 상승하였음. 다만 10월 들어서는 미주가 하락, 단기금등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하락하였음

## 2. 통화총량

9월 중 M1증가율은 소비회복에 따른 거래적 통화수요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MMF를 비롯한 단기수신의 일부가 장기금융상품(장기정기예금, 주식형펀드 등)으로 이동한 데 주로 기인하여 전월보다 하락한 12%중반으로 추정됨

M3증가율도 민간신용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감소하여 6%내외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 3. 자금흐름

9월 중 은행 수신은 MMDA 등 수시입출식예금 및 정기예금 호조에 힘입어 전월대비 큰 폭 증가하였음

MMDA는 MMF 이탈자금이 유입되면서 급증하였으며, 정기예금은 고금리 특판에 따른 1년 이상 장기예금의 대폭적인 증가에 주도되어 전월과 비슷한 증가폭을 기록하였음

자산운용사 수신은 법인세 납부, 단기시장금리 상승 및 익일환매제 실시(10월 중 예정) 등에 따라 법인자금이 MMF로부터 대거 인출되면서 큰 폭의 감소로 전환하였음

한편, 시장금리와 주가의 동반 상승으로 채권형펀드의 감소·주식형펀드의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음

## 4. 기업자금

9월 중 기업자금조달 규모는 은행대출 및 회사채 발행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신장세를 지속하였음

은행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채권의 상각 및 매각 등 분기말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추석자금 수요 및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확대 노력 등에 따라 증가로 전환하였음

회사채는 시장금리가 일시 하락세로 돌아선 월초 장기자금 우선 확보 목적으로 대규모 발행이 이루어진 데 주로 기인하여 1.7조원 순발행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기업자금사정은 부도업체수가 90.4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어음부도율이 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자금사정 BSI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무난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연체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음

## 5. 가계신용

9월중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2.1조원으로 금년 4월 이후 최소규모를 기록하였음

주택담보대출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되었으며,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추석상여금 지급 및 분기말 대손상각 등의 영향으로 0.4조원 증가에 그쳐 전월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음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9.20일 현재 1.7%의 낮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8월말 전업카드사의 연체율(1개월이상) 및 대환대출포함연체율은 전월보다 하락하였음